

항구에 묶인 배 바라보며 애꿎은 담배만...

수산자원보호령 등 위반 어민들 조업 못나가 살길 '막막' 호소

올해 30명 면세유공급 중단... "자숙의 시간 가져야"

사례 1) 지난해 가을 3중지방을 사용해 조업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A씨는 새 봄을 맞아 항구마다 그물 보수 작업 등 조업준비로 바쁜 요즘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는 물론 영어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도 못받고 면세유 공급까지 중단되자 요즘 술주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례 2) 지난해 6월 암컷 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B씨도 비슷한 처지다. 날이 풀리면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속초에도 일자리가 별로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는 나이가 적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다른 지역의 배를 빌려서 조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긴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찾아오면서 고성지역의 각 항구가 조업을 준비하는 어민들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이나 월선조업 등 안전조업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어민들은 올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런 처벌을 받은 어

민은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30명으로 10명이나 증가했다. 이들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면세유 공급 중단 때문이다. 면세유를 공급받지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 중단되면 배를 묶어 놓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민들의 말이다.

어민들과 고성군에 따르면 우리지역은 주로 대게포획금지기간 어획 또는 대게 체장미달 어획, 3중지방 사용, 월선 어업 등의 잘못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경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어민들의 신고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2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행정에서는 영어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중단과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처벌 횟수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 영어자금 회수조치 등 각종 특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각종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어민들이 사실상 '백수' 신세로 전락하자 지역 수산관련 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전직 수산관련 단체장인 C씨는 "어민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들이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처벌을 받은 어민들 스스로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지는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일부에서는 이들을 선처할 경우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고성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앞두고 요즘 이런 문제를 하소연하는 어업인들이 많다"며 "생계형 어민들의 경우 딱한 처지에 처한 것은 이해되지만, 잘못을 하고도 처벌이 주어



지난 15일 죽왕면 가진리 항구에서 한 어민이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태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지 않으면 질서가 파괴되는 문제도 있어 행정에서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새 봄을 맞아 만선의 꿈을 안고 조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자신의 배를 항구에 묶어 놓고 술주렴을 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딱한 사정은 봄을 맞은 어촌지역의 쓸쓸한 풍경이 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저도어장 4월 1일부터 개장

대진·초도 어민 소득증대 기대... 속초해경, 관계기관 대책회의

동해안 최북단 어장인 저도어장이 4월 1일부터 개장되는 가운데, 속초해양경찰서는 우리어선들의 안전조업을 위해 지난 16일

오후 2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어업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도어장 입어 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저도어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장하는 동해안 최북단 어장으로, 지난해 총 5,648척이 입어해 7억 700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등 대진 및 초도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

는 속초해경과 고성군청,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속초 어업정보통신국, 고성군수협, 대진어촌계, 군부대 등 11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한 협조사항,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입어 어업인 준수사항과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속초해경은 저도어장 개장기간 중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해 해상고를 올리는 등 대진 및 초도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물렁가시 붉은 새우 무상방류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오후리 연안에서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해 시험생산에 성공한 물렁가시 붉은 새우를 지난 16일 오후리 연안어장내에서 무상방류를 실시했다.

이날 방류한 새우는 5만 마리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달간에 걸쳐 생산된 것이다.

수산자원센터는 대량생산의 전단계로 우선적으로 갑각류중 해상 품종인 '물렁가시 붉은 새우'를 시험방류한 뒤 내년부터는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새우이외에도 시험생산 품종인 대구, 가시배새우, 왕게, 털게 등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수산자원 회복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형교 소장은 "시험방류를 시작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 및 자원회복이 필요한 품종을 적절히 수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생산할 경우 수산자원은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물렁가시 붉은 새우.

주방보조 및 흙 써빙직 구함

"가족처럼 편하게 일할 분"

- 업체 : 화진포 막국수
- 위치 : 거진읍 화포리
- 분야 : 주방보조 및 흙 써빙
- 인원 : 여 2명
- 복지 : 4대보험, 급여 상담후 결정
- 문의 : 682-4487, 010-4653-9428